

대화록·시집...이어령 유작 잇단 출간

“세상이 골백번 변해도 한국인에게만은 꼬부랑 고개, 아리랑 고개 같은 이야기의 피가 가슴속에 흐르는 이유입니다. 천하루 밤을 지새우면 아라비아의 밤과 그 많은 이야기는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꼬부랑 할머니의 열두 고개는 끝이 없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펴고 덮어주듯이 아이들의 잠자리에서 끝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것은 망각이며 시작입니다.”(‘한국인 이야기’ 시리즈 중에서)

지난 26일 별세한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은 ‘시대의 지성’이라는 세간의 평가처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문학평론가로 문단에 나왔지만 이후 꾸준히 지평을 넓혀 언론과 학문, 출판, 행정 등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그 가운데 고인의 통찰과 혜안이 담긴 저작들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지적 풍요로움을 선사했다. 특히 ‘한국인’, ‘문화’를 키워드로 하는 책들은 지성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던 명작들이다.

이어령 전 장관이 남긴 책 30여 편이 4월부터 차례로 발간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출간 대기 중인 책들은 한국인의 특성을 분석한 책에서부터 먼저 세상을 떠났던 딸에게 쓴 시집까지 다양하다.

출판계에 따르면 파란색 ‘한국인 이야기’ 시리즈 두 번째 책 ‘젓가락의 문화 유전자’를 이르면 내달 출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이야기’ 시리즈를 관통하는 것은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되어가는 것이다”라는 주제 의식이다. 시대의 지성에서 이야기꾼으로 풀이한 한국인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무릎을 칠 만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당초 ‘한국인 이야기’ 시리즈는 2020년 첫 번째 책 ‘너 어디에서 왔나’가 출간됐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후속작 출간이 늦춰졌다. 모두 12권으로 계획했지만 최근 10권으로 압축해 원고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작들은 AI 포비아를 AI 필리아로 뒤바꾸는



한국인 이야기 시리즈 두번째 책 ‘젓가락의 문화 유전자’ 이어령 대화록 시리즈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세상 떠난 딸 관련 시 등 담긴 ‘헌팅턴비치에...’ 등 4월 예정

과학과 마법의 언어를 다룬 ‘알파고와 함께 춤을’ (가제), 젓가락 문화를 통해 바라본 한국인 이야기 ‘젓가락의 문화 유전자’ (가제), 일제강점기 12세 소녀의 눈으로 기록한 한국판 ‘안네의 일기’인 ‘회색의 교실’ (가제) 등이다. 나머지 6권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인 이야기’ 시리즈로 출간된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말들을 정리한 ‘이어령 대화록’ 시리즈 두 번째 책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는 오는 4월 출간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출판사 열림원과 20권짜리 대화록 시리즈를 계획했으며 벌써 전 두 번째 책 정리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을 먼저 떠난 딸 이민아 목사를 생각하며 썼던 글과 주고 받은 편지를 담은 ‘굿나잇 키스’는 지난 2015년 발간됐다. “만일 지금 나에게 그 삼십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그 기록을 베껴주시신다면, 그래 민아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문구는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함께 안타까움을 주었다.

열림원은 이 책에 실린 시와 이 전 장관이 새로 창작한 시를 모아 4월에 ‘헌팅턴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펴낼 예정이다.

한편 이미 발간된 책들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나온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열림원)은 지난달 27일 교보문고를 비롯해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일일 베스트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문화전문기자 김지수가 인터뷰했으며 삶과 죽음, 예술 이야기가 정리돼 있다. 당초 이 책은 2월 셋째 주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47위를 기록했다.

알라딘에 따르면 고인의 마지막 저작이었던 ‘이어령 대화록’ 첫 번째 책 ‘메멘토 모리’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주 주말 대비 1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국배우조합상 주연상 ‘오징어 게임’ 이정재·정호연

이정재, ‘모래시계’ 통해 스타 반열에 정호연, ‘도전 슈퍼모델’서 얼굴 알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와 정호연이 미국배우조합상에서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각각 수상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우 이정재(50)와 정호연(29)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샌타모니카 바커행어 이벤트홀에서 개최된 제28회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TV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거머 쥐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골목길 게임의 ‘추억’이 가혹한 ‘현실’로 변모하는 아이러니를 담아내며, 극한의 경쟁에 내몰린 현대 사회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다. 영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 ‘도굴’의 황동혁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정재·박해수·오영수·위하준·정호연·허성태·아누팜 트리파티·김주령 등이 출연해 베팅 끝에 몰려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이들로 변신했다. 이 중 ‘간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영수는 지난 1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연기상을 수상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에서 사채업자들에 쫓기다 생존 게임에 참가한 주인공 성기훈을 연기했다. 술과 도박에 빠져 페인처럼 살아가면서도 사람에 대한 믿음만큼은 놓지 않는 인물이다. 후줄근한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장 바닥에 꾸겨 앉아 달고 나를 정신없이 훑아대는 모습은 기훈의 절박한 처지를 시청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정재는 모델 출신으로, 최고 시청률 64.5%를 기록한 1990년대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1995)를 통해 청춘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후 영화 ‘태양은 없다’(1999)로 27살의 나이에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또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인 임상수 감독의 ‘하녀’(2010)에서는 욕망에 충실한 주인공 남자 훈으로 분해 특유의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후 영화 ‘도둑들’, ‘신세계’, ‘관상’, ‘암살’, ‘신과 함께’ 등 출연 영화들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전성기를 누렸고 영화 ‘정사’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옛날 정년 우인, ‘사바하’에서는 신홍종교단체의 실체를 쫓는 속물 박 목사,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는 형제를 죽인 정부살인업자를 향한 복수를 꿈꾸는 레이 역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이정재는 최근에는 배우를 넘어 연출자로서의 도약도 꿈꾸고 있다.

영화 ‘헌트’의 연출과 주연을 맡아 지난해 11월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첩보 액션극 ‘헌트’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이, ‘헌트’ 연출·주연 맡아 연출자 꿈꿔 정, 샤넬 등 해외 명품브랜드 뮤즈 주목

이정재와 정호연이 ‘태양은 없다’ 이후 20여 년 만에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정호연은 ‘오징어 게임’에서 북에 남아 있는 어머니를 남한으로 데려오려다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뒤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하게 된 새타민 강새벽을 연기했다. 새벽은 초반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인물로, 정호연의 신비로운 마스크와 독특한 목소리 톤이 잘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호연은 사실 배우이기 전에 모델로 10여 년간 입지를 다져왔다. 고등학교 때 모델 활동을 시작한 그는 패션모델 선발 프로그램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 2와 4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며 샤넬 등 명품 브랜드의 광고와 쇼에 출연했으며, 2018년 9월에는 세계 여성 모델 랭킹 톱(TOP) 50위에 오르기도 했다.

배우로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것은 2020년 모델 소속사 에스티에서 배우들이 주로 있는 사람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다. 그렇게 첫 연기 데뷔를 하게 된 정호연은 샤넬,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브랜드 뮤즈로 주목받으면서 ‘오징어 게임’ 최대 수혜자로 꼽히기도 했다.

/전은재 기자-연합뉴스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에 윤정모 소설가

사무총장에 박관서 시인 선임

한국작가회의 제21대 이사장에 윤정모 소설가가 선임됐다.

한국작가회의는 최근 개최한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새 이사장에 윤정모 소설가, 사무총장에 박관서 시인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장에 선임된 윤 작가는 지난 1968년 장편 ‘무늬져 부는 바람’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1981년 여성중앙 중편 공모에 ‘바람벽의 딸들’이 당선됐다. 작가회의 상임이사과 자유실천위원장, 양심수후회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신동업창작기금, 단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생의 여로에서’, ‘봉선화가 필 무렵’, ‘구아 삼촌’ 등의 창작집을 펴냈다.

신임 박 사무총장은 1996년 계간 ‘살 사회’ 그리



윤정모 이사장



박관서 사무총장

고 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작가회의 광주전남지회 회장을 역임했다. 시집 ‘기차 아래 사랑방’과 ‘철도원 일기’ 등을 펴냈고 현재 계간 ‘시와 사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7회 윤상원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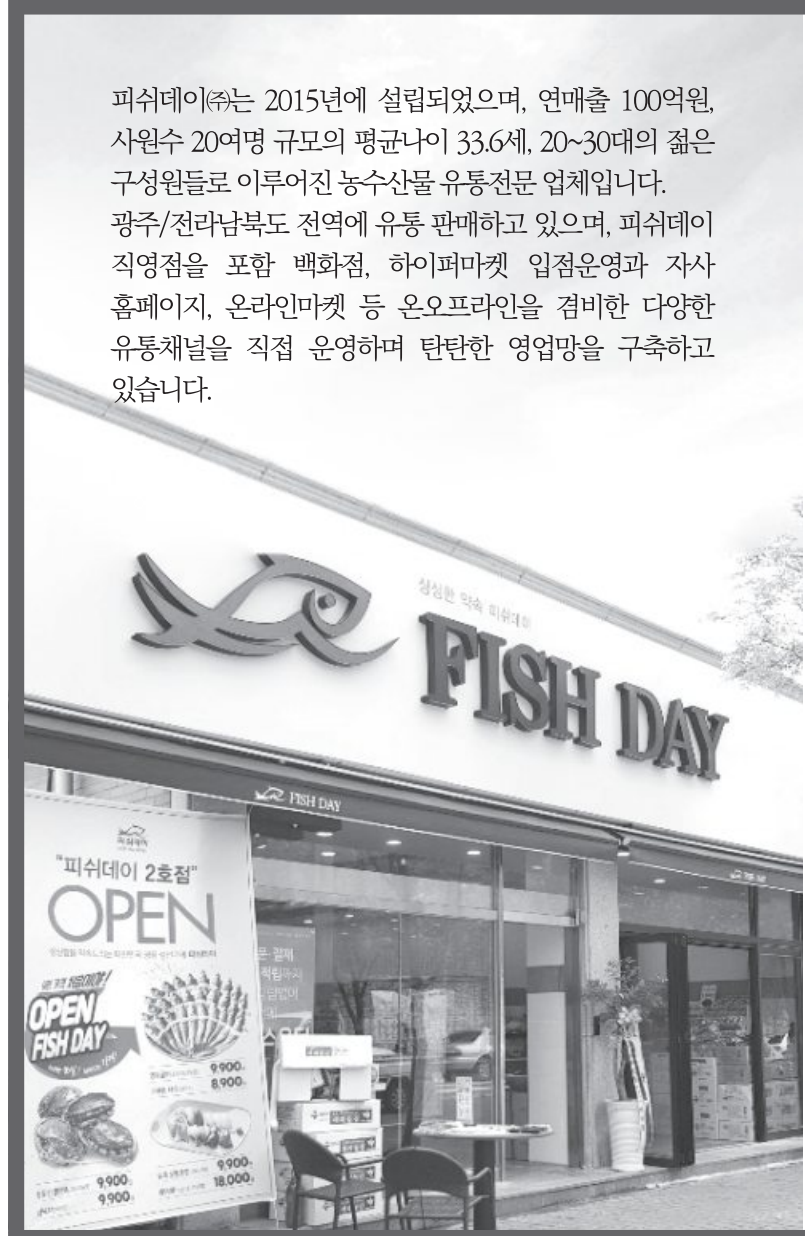
대산창작기금·번역 출판지원

대산문화재단, 6월 2일까지 공모

대산문화재단은 ‘2022년도 대산창작기금 및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을 오는 6월 2일까지 공모한다.

먼저 창작기금은 창작문학 활성화와 역량 있는 신진 문인의 발굴,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부문은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이며 부문별 약간명을 선정한다. 지원금은 각 1000만원이며 신청자격은 해당 장르 등단 10년 이하의 문인(미등단 신인 포함)으로 제한한다.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은 한국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 연구 및 출판을 대상으로 부문 및 어권별 약간명을 공모한다. 지원금은 어권별, 부문별 기준에 따라 책정되며 번역 대상작은 번역을 희망하는 한국문학 작품 또는 제29회 대산문학상 시, 소설, 희곡 부문 수상작을 대상으로 한다. 문의 02-721-3202-3. /박성천 기자 skypark@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